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2. 5. 24(목) 배포시		
배포일시	2012. 5. 24(목) 14:00	담당부서	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
담당과장	김현수 (2150-5570)	담당자	하광식 사무관 (2150-5576)

제목: 12년 1/4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

□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화로운 근로문화·환경이 공공기관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,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

- '10년 처음 유연근무제를 시범실시(11개 공공기관)한 이후 '11년 공기업·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실시를 권고*한 바 있으며, '12년부터는 기타공공기관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음**

* '11.1월 공기업·준정부기관 유연근무제 추진계획 (110개 기관)

** '12.1월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계획 (286개 기관)

□ '12년 1/4분기 실적 점검 결과, 전체 286개 공공기관 중 **183개 기관** (기관대비 64%)의 **16.9천명**(총 직원대비 5.8%)이 유연근무를 활용 중

- 유연근무 유형(붙임1 참조) 중 **탄력근무제의 활용인원이 13.3천명** (4.6%)으로 가장 많고, 그 중에서도 **시차출퇴근형(12.4천명)**이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음
- **시간제근무(단시간근로제)**로는 **2.4천명(0.8%)**이 근무 중이며, **원격 근무제도 1.2천명(0.4%)**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□ 기관 유형별로 보면, 준정부기관의 유연근무 활용이 가장 많고
다음으로 기타공공기관, 공기업의 순서임

* 준정부기관(7.2천명, 8.6%), 기타공공기관(6.8천명, 6.5%), 공기업(2.9천명, 2.9%)

○ 상대적으로 공기업의 유연근무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전반적으로
활용이 저조한 가운데, 특히 일부 대형 공기업(한전, 철도공사 등)
에서 실적이 미흡한 것에 기인

* 유연근무 활용인원, 비중(직원대비): 한전(31명, 0.02%), 철도공사(37명, 0.01%)

○ 올해 처음으로 유연근무 권고대상에 포함된 기타공공기관(총 176개
기관)의 경우 79개 기관에서 6.8천명(6.5%)이 유연근무를 실시하는
등 양호한 추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

□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단시간근로제의 경우 106개 기관이 도입하여
채용형은 2,252명, 전환형은 151명의 실적을 보임

○ 특히, 전일제근무에서 단시간근로로의 전환은 30대 여성이 출산·
육아를 위해 1년 이내 기간에서 전환하는 사례가 일반적인 형태

□ 탄력근무제*의 경우, 전반적으로 도입기관 수가 증가하는 등 확산
되고 있으나,

* 탄력근무제 유형: 시차출퇴근형, 근무시간선택형, 집약근무형, 재량근무형

○ 활용인원이 시차출퇴근형에 편중되어 있고, 재량·집약근무형* 등의
경우에는 기관의 적극적 도입 노력과 직원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

* 재량근무형 도입기관(활용인원): 1개(8명), 집약근무형 도입기관: 7개(48명)

□ **원격근무제**의 경우, **16개 기관(5.6%)**만 실시하고 있는 등 다소 미흡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바,

○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스마트워크화 추세 등 고려시 **유연근무 유형을 한층 다양화**할 필요성 대두

* 재택근무형 도입기관(활용인원): 9개(560명), 스마트워크근무형 도입기관: 8개(617명)

□ 정부는 향후에도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**유연근무제 확산**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**유연근무제의 다양화**를 유도해 나갈 방침

○ 노사발전재단(유연근무 자문·지원기관) 등 **전문기관의 컨설팅**을 통해 공공기관이 **체계적 유연근무제 운영**을 할 수 있도록 지원

○ 또한, **상반기 설문조사**를 실시하여 유연근무제 다양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의 **애로요인**을 파악해 **개선방안**을 강구해 나갈 계획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유 형	세부형태	개 념
시간제 근 무	주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	
탄력 근무제	주40시간 근무하되, 출퇴근시각·근무시간·근무일을 자율 조정	
	◦시차출퇴근형	▶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- 출근시각을 자율적으로 조정
	◦근무시간선택형	▶ 주5일 근무 ▶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시간(출·퇴근시각)을 자율 조정
	◦집약근무형	▶ 주5일 미만 근무 * 예: 1일 10시간 근무시 주 4일만 출근
	◦재량근무형	▶ 출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*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
원격 근무제	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	
	◦재택근무형	▶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
	◦스마트워크 근무형	▶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▶ 모바일기기를 이용,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

□ '12년 1/4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 (총괄)

구 분	시간제근무(단시간근로)			탄력근무제					원격근무제			계
	소계	채용 ¹⁾	전환 ¹⁾	소계	시차 출퇴근형	근무시간 선택형	집약 근무형	재량 근무형	소계	재택 근무형	스마트워크 근무형	
기관수 ²⁾ (개)	106	100	37	151	142	27	7	1	16	9	8	183
인원수 ³⁾ (명)	2,413	2,252	161	13,284	12,352	876	48	8	1,177	560	617	16,874
총직원대비 ⁴⁾	0.8%	0.8%	0.0%	4.6%	4.3%	0.3%	0.0%	0.0%	0.4%	0.2%	0.2%	5.8%

- 1) '12년 1분기에 단시간근로로 채용되거나 전환한 인원 및 '12년 이전에 단시간근로로 채용되거나 전환하여 '12년 1분기까지 단시간근로를 유지한 인원을 모두 포함
- 2) 286개 공공기관 기준, 1개 기관이 여러 유형 중복 운용 가능
- 3) 연도개시일부터 분기말일까지 유연근무 실적이 있는 인원을 합산. 동일인이 2개 이상 유연근무제 활용시 중복 계상. 다만, 동일인이 시차를 두고 하나의 유연근무제를 2회 이상 활용한 경우 1회로 계상
- 4) '11년말 공공기관 직원수 기준(현원 + 비정규직)

□ '12년 1/4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 (기관 유형별)

구 분		시간제근무 (단시간근로)		탄력근무제				원격근무제		계
		채용	전환	시차 출퇴근형	근무시간 선택형	집약 근무형	재량 근무형	재택 근무형	스마트워크 근무형	
공기업 (28개)	인원수(명)	307	64	2,000	15	5	0	493	2	2,886
	직원대비 ¹⁾	0.3%	0.1%	2.0%	0.0%	0.0%	0%	0.5%	0.0%	2.9%
준정부 기관 (82개)	인원수(명)	1,072	87	4,840	508	7	8	20	608	7,100
	직원대비 ¹⁾	1.3%	0.1%	5.8%	0.6%	0.0%	0.0%	0.0%	0.7%	8.6%
기타 공공기관 (176개)	인원수(명)	873	10	5,512	353	36	0	47	7	6,838
	직원대비 ¹⁾	0.8%	0.0%	5.2%	0.3%	0.0%	0%	0.0%	0.0%	6.5%

- 1) '11년말 해당 유형의 공공기관 직원수 기준(현원 + 비정규직)